

# KWDI

## 해외통신

2019년 10월 2차 (2019.10.16 ~ 10.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 북아일랜드, 낙태 합법화로 2020년 4월부터 낙태 시술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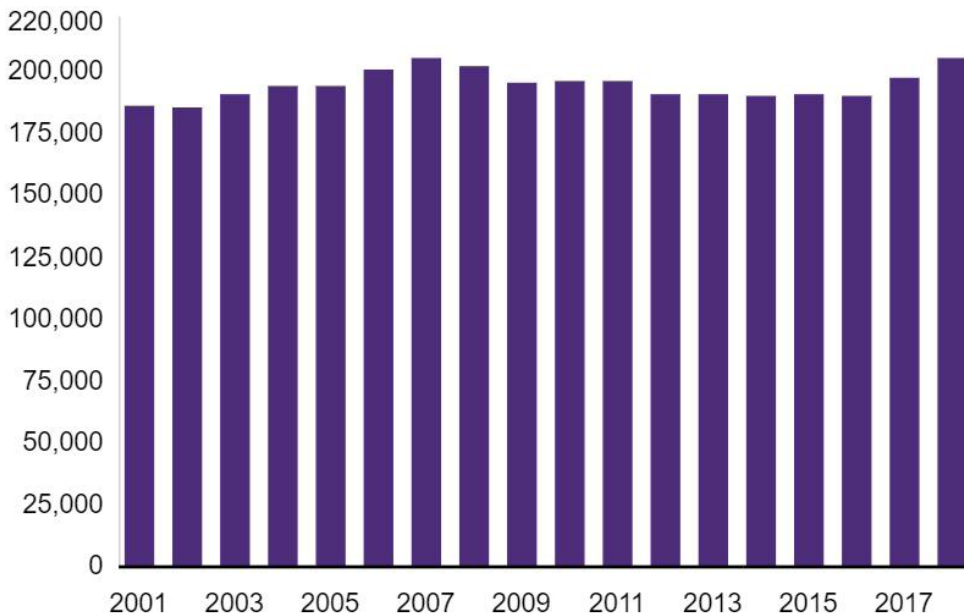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고수해온 북아일랜드에서도 낙태가 허용된다.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2013년 낙태약을 구입해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북아일랜드 여성들도 영국 내 다른 지역처럼 낙태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 북아일랜드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올해 7월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덕분이다. 지금껏 북아일랜드는 여성의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낙태가 가능했었다. 이에 비해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은 의사 두 명의 승인 아래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며, 임신 24주가 넘더라도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 ▶ 영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18년 한 해 영국과 웨일스에서 이뤄진 낙태는 총 205,295건이다. 그런데 이 중 4,587건이 영국과 웨일스 거주자가 아닌 영국으로 '낙태 원정'을 오는 여성들에 의해 이뤄지는 낙태로 나타났다.
- ▶ 10월 22일부터 낙태 금지법이 폐지된 다음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법원은 2013년 15세 딸의 낙태약을 온라인으로 샀다가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라고 배심원들에게 주문했다. 해당 여성은 북아일랜드 형법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사건은 낙태에 찬성하는 대중의 공분을 사 북아일랜드도 영국 다른 지역처럼 낙태를 허용하자는 지속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계기가 됐고, 올해 7월 영국 의회가 관련법을 통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 10월 22일을 기점으로 낙태는 합법이지만 북아일랜드 정부가 낙태시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은 내년 4월부터이다. 낙태시술 서비스는 북아일랜드 2개 병원에서 제공되며, 의사들은 8년 이상 경력 있거나 낙태관련 전문훈련을 받은 자만 시술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낙태 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 매년 1,060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자료

- BBC(2019.10.22).  
"Northern Ireland abortion law changes: What do they mean?",  
<https://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50125124>  
(검색일 : 2019.10.22).
- BBC(2019.10.22).  
"Northern Ireland abortion and same-sex marriage laws change",  
<https://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50128860>  
(검색일 : 2019.10.22).
- The Guardian(2019.10.23).  
"Woman in Northern Ireland abortion pills case formally acquitted",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9/oct/23/woman-northern-ireland-abortion-pills-case-formally-acquitted-legal-reforms>  
(검색일 : 2019.10.22).
- BBC(2019.10.22).  
"What are the UK's laws on abortion?",  
<https://www.bbc.com/news/health-19856314>  
(검색일 : 2019.10.22).

[그림]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의 연도별 합법적 낙태 시술 건수



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살지 않는 여성이 받은 낙태 시술 건수도 통계에 포함돼 있음.

출처: 영국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https://www.bbc.com/news/health-19856314>

## 유럽 EUROPE



### EU 5개국, 여성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유럽 내 싱크탱크 기관인 Jean-Jaurès Foundation과 the European Foundation for Progressive Studies에서는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 2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에서 올해 4월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한 것이며, 이번 조사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5개국 총 5,026명의 18세 이상의 여성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5개 유럽 국가 약 60%의 여성이 그동안 일하면서 직장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세부적인 응답 비율은 다소 상이했으나, 5개국 모두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성차별 또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독일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스페인 66%, 영국 57%, 이탈리아 56%, 프랑스 5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의 여성 응답자 66%가 최소 1회 이상 피해 경험이 있으며, 30세 이하 여성 응답자 15%는 이미 직장에서도 누군가와 강요로 인한 또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참고자료

- Jean-Jaurès Foundation & the European Foundation for Progressive Studies(2019), "European Observatory on sexism and sexual harassment at work". [https://www.feps-europe.eu/attachments/publications/116268\\_rapport\\_feps-fjj\\_uk.pdf](https://www.feps-europe.eu/attachments/publications/116268_rapport_feps-fjj_uk.pdf) (검색일 : 2019.10.22).
- The Brussels Times(2019.10.12.), "60% European women victims of workplace sexism". <https://www.brusselstimes.com/all-news/belgium-all-news/72959/60-european-women-victims-of-workplace-sexism/> (검색일 : 2019.10.22.)

성희롱 및 성추행 유형으로 제시된 보기 중 휘파람 불기, 무례한 손동작이나 발언, 음흉한 시선이나 윙크 같은 언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46%였다. 그리고 33%의 응답자는 얼굴, 손, 팔과 같은 부분에 가벼운 신체접촉을 당한 적이 있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강제포옹이나 입맞춤을 하는 등 보다 심각한 성추행을 경험한 경우도 18%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응답자의 9%는 취업이나 승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자는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성추행 및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세부 피해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모든 유형에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직장 내 상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매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신체 평가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만이 상사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엉덩이 접촉, 강제 포옹 또는 입맞춤을 당한 여성 응답자 중 13%만이 상사에게 이를 말했다고 답했다. 취직이나 승진을 대가로 한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는 약 16%의 여성응답자가 상사에게 이를 말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유럽 5개국 여성들이 직장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앞으로 해당 국가의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만하다.

## 독일 GERMANY



### 독일,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광고 금지하는 법안 제출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연스 슈판 독일 연방 보건부장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독점적으로 또는 두드러지게’ 보이는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스 슈판 보건부장관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보낼 메시지는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다’이지만 성형수술 광고는 이와 반대로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성형수술 광고는 아름다움이나 외모에 매우 민감한 청소년에게 외모를 바꾸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언론 ‘타게스슈피겔’보도에 따르면, 연스 슈판 장관의 새 법안은 기존 광고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포함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형수술 광고는 물론 성형수술에 관한 어떤 홍보자료도 금지한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 광고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외모를 바꾸고 싶은 욕구를 심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 참고자료

- Der Tagesspiegel(2019.10.16.).  
“Spahn plant Werbeverbot für Schönheits-OPs bei Jugendlichen”,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du-bist-ok-genauso-wie-du-bist-spahn-plant-werbeverbot-fuer-schoenheits-ops-bei-jugendlichen/25119428.html>  
(검색일 : 2019.10.24.).

-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형수술 광고에 대해서만 금지해왔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수술 전후의 외관 비교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법안은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번 보건부장관의 법안에 대해 전문의들은 찬성하면서도 성형수술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언론매체에 실린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모방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많아져 청소년들의 성형수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성형수술로 인한 여러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 독일 성형외과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독일에서 77,485건의 성형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9% 증가한 수치다. 전문의들은 성형수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 흡입술과 유방 및 입술을 확대하는 수술이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 오래전부터 성형수술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회민주당의 보건 관련 전문가 칼 라우터바흐 의원은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의 성형 수술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수술이 필요한 장애가 있거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정 정도의 수술이라 할지라도 수술과 같은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 의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독일과 인접한 다른 나라에서는 의학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성형수술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성형수술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에 참여해야 하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담 후 수술까지 4주의 대기 기간이 유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한편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마른 여성과 관련된 광고 중단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의회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낮은 거식증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광고 제한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도로테 베어 기독교사회당 의원은 “광고에서 보이는 여성 모습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체중 여성이 출연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시도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저체중 여성을 모델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프랑스이며, 스페인과 이스라엘도 비슷한 금지 법안을 도입했다.

- WELT(2019.10.17.).  
“Selbst plastischen Chirurgen geht Spahns Verbot nicht weit genug”,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02067718/Schoenheits-OPs-Plastischen-Chirurgen-reicht-Spahns-Verbot-nicht.html>  
(검색일 : 2019.10.24.).
- DW(2018.10.02.).  
“New German government plans to clamp down on advertising with skinny women”,  
<https://www.dw.com/en/new-german-government-plans-to-clamp-down-on-advertising-with-skinny-women/a-42533728>  
(검색일 : 2019.10.24.).



## 캐나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남성 접종 등 자궁경부암 예방 프로그램 확대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병원(B.C. Women's Hospital) 공동연구팀이 국제적인 전염병 학술지(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정부의 자궁경부암 백신(정확히는 HPV 인유두종 백신 Gardasil)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자궁경부 세포 변형 발병률이 57%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초등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해온 주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자궁경부암 백신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시행중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그룹인 당시 6학년 여학생들이 현재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프로그램에 대상자가 되어 연구자들로 하여금 백신 프로그램의 장기 추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16일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교육청은 해당 연구 내용을 인용하여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연구는 학교에서 접종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폭넓게 백신을 접종하는 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것이라 밝혔다. 주 교육청은 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가 교육청과 보건당국, 학부모의 협업이 주의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 캐나다는 2007년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을 공공의료 서비스에 통합시켜 무상으로 접종하고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무료 접종 대상자의 나이는 주 별로 달라서 알버타의 경우 5학년, 온타리오의 경우 12학년에 접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주에서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드물지만 백신의 부작용 또한 나타난 만큼 왜 성관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느냐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부딪쳐야 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거뒀다. 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포함한 주정부들은 학교에서 접종을 하되 의무는 아닌 자발적 접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
- 이후 캐나다 전역에서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HPV 바이러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흔히 나타나며 성관계로 쉽게 전염되는 만큼 남자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까지도 공공의료에 포함 시켜야만 백신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커졌던 것이다. 이러한 압력은 2012년 발간된 국가 예방접종 자문 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NACI)의 공식 자문결과로 더 힘을 얻게 되었다. 자문위는 9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들에게 접종을 하는 것이 집합적 수준에서 자궁경부암 발병률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여성만을 접종하면 최대의 질병 억제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시 접종 프로그램에 남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 참고자료

-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2018), Immunization Uptake in Grade 6 Students, <http://www.bccdc.ca/resource-gallery/Documents/Statistics%20and%20Research/Statistics%20and%20Reports/Immunization/Coverage/Grade%20%20Coverage%20Results.pdf> (검색일 : 2019.10.17.).
- The Star(2019.10.16), HPV immunization program in B.C. cuts rates of pre-cancer in women, study says, <https://www.thestar.com/vancouver/2019/10/16/hpv-immunization-program-in-bc-cuts-rates-of-pre-cancer-in-women-study-says.html> (검색일 : 2019. 10. 17.).
-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 Term Care (2017), [http://www.health.gov.on.ca/en/pro/programs/immunization/docs/hpv9\\_patient\\_fact\\_sheet.pdf](http://www.health.gov.on.ca/en/pro/programs/immunization/docs/hpv9_patient_fact_sheet.pdf) (검색일 : 2019. 10. 17.).
- Th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2), An Advisory Committee Statement (ACS),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NACI),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reports-publications/canada-communicable-disease-report-cdr/monthly-issue/2012-38/canada-communicable-disease-report.html> (검색일 : 2019. 10. 17.).

이제 최근 점차 캐나다의 많은 주들이 남성 또한 자궁경부암 백신 프로그램에 포함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2017년 6학년 남학생들을 학교 기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남학생들의 참여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주의 6학년 남학생들을 학군 별로 조사한 2018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50%에서 70%의 남학생들이 접종을 받았다.

- C Sarai Racey, Arianne Albert, Robine Donken, Laurie Smith, John J Spinelli, Heather Pedersen, Pamela de Bruin, Cindy Masaro, Sheona Mitchell-Foster, Manish Sadarangani, Meena Dawar, Mel Krajden, Monika Naus, Dirk van Niekerk, Gina Ogilvie,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Rates in British Columbia Women: A Population-Level Data Linkage Evaluation of the School-Based HPV Immunization Program (2019).  
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jiz422,  
<https://doi.org/10.1093/infdis/jiz422>  
(검색일 : 2019. 10. 17).